

# 사시(四時) · 월령(月令)의 명리학적 수용에 관한 고찰

김만태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조교수, 명리학 전공  
ware4u@dongbang.ac.kr

I. 머리말

II. 사시 · 월령과 오행 배속의 양상

III. 월령과 오행 연관의 명리학적 의미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대 사유체계에서는 하늘과 땅·인간이 서로 감응하면서 우주 자연의 질서가 형성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늘과 인간, 자연과 사회의 조화를 중시했던 고대 중국사회에서는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각 계절에 적합한 정사(政事)를 베풀어야 한다는 월령적(月令的) 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월령사상보다 후대에 등장한 음양오행설은 다양한 연관을 통하여 자연만물의 모습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고대 자연철학의 한 모습이었다. 전국시대 말기에 음양오행설이 흥기하면서 월령사상과 오행관념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에 기초하여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를 유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월령사상은 추상적 유비(類比)체계로 발전한 오행관념과 본질적으로 매우 친연하다.

그러므로 천지자연의 운행으로서 사시(四時)의 순환과 오행(五行) 간의 연관성은 의학·천문학·역법·명리학 등 중국 고대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의 면모에는 과학적 인식과 신비주의적 인식이 혼재한다.

서로 대응하는 음양오행의 기(氣)가 상호 작용하여 우주만물을 생성·변화시킨다는 음양오행설은 하늘과 사람은 한 몸으로 상응하므로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상서(祥瑞)와 재이(災異)라는 신호로 나타내고, 인간은 그 신호에 정성껏 응답하고 천의(天意)가 투영된 천시에 순응함으로써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인식한 소박한 천명관과 연관되면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의 사유와 삶에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그 예로 1년 12달의 생성 및 낱짜 표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지(地支)와 천간(天干)도 월령의 오행 배속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본래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으로부터 시작된 음양오행설은 형이상학의 옷을 입으면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차별성을 설명하는데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오직 사람만 기의 율바름을 얻으므로 만물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존재라고 하였다. 나아가 사람들 간의 차이, 예를 들면 성인(聖人)과 범인(凡人), 상지(上智)와 하우(下愚), 복(福)과 화(禍), 부귀와 빈천, 장수와 요절 등의 차이도 모두 사람들이 부여받은

기의 차이 때문이라고 인식되었다.

명리학은 일월오성·28수 등 천체의 운동을 포함한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응하는 인사관계를 음양의 소식(消息)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를 통해 해명하려는 음양오행설을 정립하고 간지력법(干支曆法)을 창조했던 중국과 그 주변 국가(한·일)에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간지(干支)로 치환한 후 그 상호 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과 관련된 요소·빈부·귀천·성패 등의 차별함을 추리하기 위한 체계이다.<sup>1)</sup>

명리학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기원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동진(東晉)의 곽박(郭璞, 276-324)이 저술한 『옥조신응진경(玉照神應真經)』에 '사주(四柱)'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명리(命理)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비로소 등장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일단 현재로서는 4세기 초까지 명리학의 기원이 소급된다.<sup>2)</sup> 명리학은 그 발전과정상 고법(古法) 명리학과 신법(新法) 명리학으로 구분된다. 고법명리학은 생년(生年)의 천간을 녹(祿), 생년의 지지를 명(命), 생년 간지의 납음오행(納音五行)<sup>3)</sup>을 신(身)이라 하면서 생년을 위주로 간명(看命)하는 것으로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sup>4)</sup>가 이에 해당한다.

고법명리학은 10세기 중반(오대 말-북송 초) 서자평(徐子平)에 이르러 생일(生日)의 천간을 위주로 하되 생월(生月)의 지지, 즉 월지(月支)와 월령을 중시하는 신법명리학으로 일대 변환을 하였다. 서자평은 자신이 직접 저술한 명리서 『명통부(命通賦)』의 첫머리에서 “월지(月支)를 기준으로 삼아 사시를 나누고 오행의 소식을 일으켜서 운(運命)을 논한다”<sup>5)</sup>라고 하였다. 이는 명리학에서 월령과 오행의 연관성이 갖는 의미를 삼재론(三才論)을 근거로 함축해서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사시·월령과 오행의 연관성을 살피는 작업은 명리학의 핵심 요소인 지장간(支藏干)·월률분야(月律分野)·인원용사

---

1)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3쪽.  
2) 위의 논문, 48쪽.  
3) 宮商角徵羽의 다섯 音에 각기 數와 五行을 붙이고(納) 그것으로써 육십갑자의 오행을 매기는 것이다.  
4) 전국시대 鬼谷子가 남긴 9편의 글을 唐代 李虛中이 주해한 것이라고 전해지나 실제로는 宋代 익명의 星學者가 이허중의 명성에 자신의 학설을 가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欽定四庫全書總目』 子部, 『李虛中命書』 提要.  
5) 『明通賦』. “論運者, 以月支爲首, 分四時, 而提起五行消息.”

(人元用事)<sup>6)</sup> 등 명리학적 삼재(三才)사상을 고찰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명리학계에서 누락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기존 학계에서 월령과 오행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다. 그러나 명리학으로 응용된 경우를 다루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시·월령과 오행 간의 연관성이 한대(漢代) 이후 지금까지 동아시아 술수문화에서 면면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명리학에 어떤 양상으로 반영되고 배속되어 존재해오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지장간·월률분야를 비롯한 명리학적 삼재사상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 II. 사시·월령과 오행 배속의 양상

자연의 시간적 흐름을 인간 삶의 준거로 삼고자 했던 월령적 사유의 흔적은 이미 중국 고대부터 있어왔다. 현존하는 중국 고대문헌들 중 월령과 관련된 최초의 자료는 『시경』 「빈풍·칠월」이다. 7월을 중심으로 12달에 각각 나타나는 절후와 그에 따라 백성들이 행해야 할 농사·수렵·채취·양잠·길쌈·제사·생활대책 등을 부(賦)의 형식으로 기록해서 읊고 있다. 그러나 「빈풍·칠월」에서 언급되는 월령의 내용은 매우 단편적이며 일정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사시와 오행 간의 연관성도 전혀 찾을 수 없다.

현존하는 중국 고대문헌들 중에서 최초로 사시의 개념이 등장하는 자료는 『상서』 「우서·요전」<sup>7)</sup>이고, 오행에 관한 가장 오래 전거는 『상서』 「하서·감서」<sup>8)</sup>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시와 오행 간의 연관성은 아직

6) 지장간(支藏干)은 지지 안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천간을 말한다. 지장간이 월지에 있는 경우를 월지장간(月支藏干) 또는 월률분야(月律分野)라 하고, 그 외의 지지에서는 인원용사(人元用事)라 한다. 학설에 따라 지장간의 월률분야와 인원용사의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김만태, 「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衝·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132(2013), 140쪽.

7) 대체로 史家들은 「堯典」이 늦어도 西周시대 작품이라고 본다.

8) 『尚書』 「夏書·甘誓」. “有扈氏 威侮五行 怠棄三正.” “상고(上古)의 역사서인 『상서』의 관문 문제는 다소 복잡한데 진짜로 관별된 금문(今文)과 훗날 진(晉)대에 출현한 위고

나타나지 않는다.

『일주서(逸周書)』 「주월」과 「시훈」에서도 월령과 관련된 초기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일주서』는 그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서』 「주서」를 정리하고 남은 문헌으로 대부분 선진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기우(劉起鈺)의 고증에 따르면 『일주서』 「주월」과 「시훈」은 한대에 적힌 것이라 하고<sup>9)</sup>, 서복관(徐復觀)은 이 자료들이 주나라 왕실에서 천문을 주관하던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sup>10)</sup> 그 저술 시기에 이견이 있다.

「주월」에서는 춘하추동의 사시로 1년이 완성되고 각 시에는 맹중계(孟仲季)가 있으며, 12달은 각각의 중기(中氣)로써 정해지는데 중기가 없으면 윤달이 된다는 무중치윤(無中置閏)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sup>11)</sup> 「시훈」은 「주월」에서 제시한 총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1년 24절기의 절후를 각각 기술하면서 각 절후들이 그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국가적 재해와 이상현상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절기를 15일로 배당하면서 1년을 360일로 인식하였다.

입춘을 예로 들자면 “입춘이 되면 얼었던 것이 동풍에 녹아서 풀리고, 다시 5일 후에는 겨울에 숨었던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다시 5일 후에는 물고기가 얼음 위로 올라온다. 그러나 바람이 얼었던 것을 풀지 못하면 호령(號令)이 행해지지 않고, 숨었던 벌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음기가 양기를 어지럽히고”라고 하였다.<sup>12)</sup> 그러므로 월령체계의 초기 형태는 『일주서』 「시훈」에서 찾을 수 있다.

『대대례기』 「하소정」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이 차례대로 열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월령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하소정」은 하왕조

---

문(僞古文)이 절반가량씩 뒤섞여 전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료 연구가 유기우(劉起鈺)의 고증에 의하면 『하서(夏書)』의 「감서(甘誓)」편은 『금문상서(今文尙書)』로서 하(夏)대부터 구전으로 전승된 조훈(祖訓)이었던 듯한데 상(商)대에 와서 문자로 쓰여졌으며, 주(周)대에 이르러 다시 새롭게 쓰여 정착된 것이다. 이종호 편, 『유교 경전의 이해』(중화당, 1994), 43-55쪽.

9) 제해성, 「『逸周書』의 文學 價値에 관하여: 胡念貽의 <『逸周書』中的三篇小說>에 대한 淺見」, 『중국어문학』 34(1999), 11쪽.

10) 이석명, 「『회남자』의 時令사상과 음양오행론」, 『대동문화연구』 70(2010), 144쪽.

11) 『逸周書』 「周月解」. “凡四時成，歲有春夏秋冬，各有孟仲季，以名十有二月，中氣以著時應。春三月中氣雨水，春分，穀雨，夏三月中氣小滿，夏至，大暑，秋三月中氣處暑，秋分，霜降，冬三月中氣小雪，冬至，大寒，閏無中氣，斗指兩辰之間。”

12) 『逸周書』 「時訓解」. “立春之日 東風解凍 又五日蟄蟲始振 又五日魚上冰。風不解凍 號令不行，蟄蟲不振 陰紆陽。”

시대의 역으로서 공자가 하왕조의 후손인 기(杞)라는 제후국에 가서 직접 구해왔다고 한다. 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것과는 사뭇 다르며 일종의 농사력으로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성상(星象)의 특징을 비롯하여 절후·농사·제사·생활대책 등을 기록한 것이다. 「하소정」의 기사는 경(經)과 전(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은 「하소정」의 본래 기사이고, 전은 경의 해설로서 공자의 제자들이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소정」에서도 오행과 관련된 언급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국시대 자료 가운데 성숙된 오행설이 나타나는 문헌은 『관자』와 『여씨춘추』이다. 이 중 『관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오행설을 기록하고 있다. 『관자』에서 오행 개념은 비로소 사시 및 오방과 결합되며 이를 설명하는 체계로 확립된다. 그리고 오행이 천시인 각 계절의 순차와 그 특성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관자』 「유관」·「유관도」<sup>13)</sup>에서는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계절 또는 절기에 따라 군주가 지켜야 할 복장·음식·음악, 군주가 수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 언급한다. 이는 월령사상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군주가 월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관자』 「사시」에서는 오행이 방위·천체·인체·생기·덕성 등을 비롯하여 각 계절에 시행해야 할 정사, 즉 월령과 결합된다. 이는 사시와 오행사상이 결합되는 최초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관자』에는 중앙토(中央土) 관념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 또한 토(土)가 춘·하·추·동, 목·화·금·수의 사계절을 돕는다(輔四時)는 관념도 보이기 시작한다. 후대의 『여씨춘추』 「십이기」나 『회남자』 「시칙훈」, 『예기』 「월령」, 『춘추번로』 「오행대」 등과 달리 오행의 토를 어느 한 계절에 배속시키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게 하면서 사계절 모두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관자』 「오행」에는 동지(冬至)를 한 해 기운이 시작하는 발단으로 보고 갑자(甲子[木行]) → 병자(丙子[火行]) → 무자(戊子[土行]) → 경자(庚

13) ‘幼官’이라는 편명은 본문의 내용과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幼官은 천자가 政敎를 펼치는 장소(明堂)인 女官과 글자가 비슷하므로 ‘女官’이 편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 편の内容이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를 하는 방식, 관직의 명칭을 五行의 이치로 서술하기 때문에 ‘五官’의 잘못된 표기로 보기도 한다. 관중 지음, 김필수 외 옮김, 『관자』(소나무, 2010), 106쪽.

귀(金行) → 임자(壬子[水行])의 순서로 1년 360일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72일씩을 배정해서 계절의 추이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오행과 대응하는 오시령(五時令) 체계는 『관자』에서 비로소 출현하기 시작한다. 또한 오행의 상생에 따른 지금의 오행 순서인 ‘목 → 화 → 토 → 금 → 수’가 『관자』 「오행」에서 비로소 확정되었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자』에서 정립된 사시와 오행사상은 이후 『여씨춘추』·『황제내경』·『춘추번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간다.

전국 말 『여씨춘추』 「십이기」에 이르면 월령사상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다. 당시 천하통일의 대세 속에서 앞으로 통일될 천하를 이끌어갈 황제에게 필요한 통치 방안을 제공할 의도로 『관자』 「유관」·「사시」 등에 실려 있는 통치자 중심의 월령사상을 「십이기」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하였다. 「십이기」에서 제시된 월령체계는 이후 한대의 『회남자』·『예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에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유행한 월령체계의 기본 틀이 되었다.<sup>14)</sup>

「십이기」는 형식상 『대대례기』 「하소정」의 12월령 체제를 따랐으나 내용상으로는 훨씬 더 풍부해지고 체계화되었다. 12개의 각 달마다 나타나는 천체현상을 비롯하여 그 달에 해당하는 오행(日)·상제(帝)·신령·짐승·소리·음계(律)·숫자·맛·냄새·제사·제물·절후, 천자의 거처·수레·깃발·의복·패옥·식사·그릇, 국가적 행사, 금기사항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행과 사시의 배합에서는 계하(季夏)의 위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토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계하에서는 화(火)와 토의 성격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늦여름의 달(6월)은 [...] 그 시기는 오행상 화인 병정(丙丁), 상제는 염제(炎帝), 신은 축융, 짐승은 깃 달린 것, 소리는 치, 음계는 임중, 수는 7, 맛은 쓰고, 냄새는 누른내이다. [...] 계절의 중앙은 토(土)로서, 그 시기는 오행상 토인 무기(戊己), 상제는 황제(黃帝), 신은 후토, 짐승은 기린, 소리는 궁, 음계는 황중, 수는 5, 맛은 달고, 냄새는 향내이다.<sup>15)</sup>

14) 이석명, 앞의 논문, 145쪽.

15) 『呂氏春秋』 「十二紀」. “季夏之月 [...] 其日丙丁, 其帝炎帝, 其神祝融, 其蟲羽, 其音徵, 律中林鐘, 其數七, 其味苦, 其臭焦. [...] 中央土, 其日戊己, 其帝黃帝, 其神后土, 其蟲倮, 其音宮, 律中黃鐘之宮, 其數五, 其味甘, 其臭香.”

『회남자』 「시칙훈」도 『여씨춘추』 「십이기」와 마찬가지로 월수(月數)는 「하소정」을 따랐으며, 각 달의 천문현상, 자연계의 여러 징후, 각 달에 해당하는 오행 및 사물의 특성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월령에 근거해 통치자가 수행해야 할 여러 의례와 생활방식, 정령, 그리고 월령에 합당하지 않은 정령을 내렸을 때 발생하게 될 재이현상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씨춘추』 「십이기」에 비해 매우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

『여씨춘추』와 달리 『회남자』 「시칙훈」에서는 계하를 따로 독립시켜 한여름(仲夏)과 초가을(孟秋) 사이에 위치시키고 토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남자』 「시칙훈」에 이르러 오행에 상응하는 본격적인 오시령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회남자』 「천문훈」에서는 「시칙훈」과 다른 월령체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목화토금수의 오행에 각각 72일씩을 배당하는 관점이다. 가령 임오(壬午)일이 동지이면 (42일이 지나) 갑자(甲子)일부터 목이 집권하고, 72일이 지나 병자(丙子)일부터 화가 집권하고, 72일이 지나 무자(戊子)일부터 토가 집권하고, 72일이 지나 경자(庚子)일부터 금이 집권하고, 72일이 지나 임자(壬子)일부터 수가 집권하고, 72일이 더 지나면 1년이 끝나고 경오(庚午)일부터 다시 목이 집권한다. 이렇게 해마다 6일씩 옮겨서 추수(推數)하면 10년 만에 다시 갑자(甲子)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sup>16)</sup>

다른 하나는 진술축미(辰戌丑未)의 토를 각각 사계(四季)로 배속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각 오행에 구체적 일수(日數)는 아직 배분하지 않았다. 본래 1년 12달의 월령은 십이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애초 소박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오행설이 전국시대 말기 추연에 의해 추상적 개념과 범주로 전환되고, 진한시대에 오행설이 크게 흥행함에 따라 많은 사물에 오행적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십간·십이지도 마찬가지였다.

『예기』 「월령」은 『여씨춘추』 「십이기」와 내용이 거의 같다. 따라서 한대의 「월령」 저술자가 「십이기」의 전적과 동일한 문헌을 보았든가, 아니면 「십이기」 그 자체를 옮겨서 「월령」을 지었다고도 본다. 편명인

16) 『淮南子』 「天文訓」. “壬午冬至, 甲子受制, 木用事, 火煙青. 七十二日, 丙子受制, 火用事, 火煙赤. 七十二日, 戊子受制, 土用事, 火煙黃. 七十二日, 庚子受制, 金用事, 火煙白. 七十二日, 壬子受制, 水用事, 火煙黑. 七十二日而歲終, 庚午受制. 歲遷六日, 以數推之, 十歲而復至甲子.”

「월령」은 1년 12달에 조정에서 행할 정령(政令)을 말하며, 여기에는 천문·역술에 관한 기사와 계절의 추이에 순응한 자연의 변화 등의 기사와 여러 가지 연중행사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월수는 「하소정」을 따랐고, 정령의 내용에서는 하·상·주 삼대의 모범을 따르면서 진(秦)의 풍습도 함께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행과 사시의 배합에서는 『여씨춘추』 「십이기」와 마찬가지로 『예기』 「월령」에서도 계하의 위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토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계하에서는 「십이기」와 같이 화와 토의 성격이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송대(宋代)의 백과사서(百科辭書)인 『태평어람』에는 『악기(樂記)』의 말이라면서 인용하여 “봄에는 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하는데, 토만 계절을 이름 붙이지 않은 까닭은 땅(地)은 흙(土)의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오행보다 존귀하므로 한 부분에 배속시키지 않았다”<sup>17)</sup>라고 적고 있다. 이는 『관자』 「사시」와 비슷한 관점이다. 그러나 실제 『예기』 「악기」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sup>18) 19)</sup>

『관자』 「오행」, 『회남자』 「천문훈」과 비슷한 내용이 『춘추번로』 「치순오행」<sup>20)</sup>에도 나온다. 『관자』 「오행」과 마찬가지로 한 해의 시작점을 동지로 보면서 ‘목 → 화 → 토 → 금 → 수’의 오행 순서로 1년 360일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72일씩을 배정해서 계절의 추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춘추번로』 「오행대」에서는 『회남자』 「시칙훈」과 마찬가지로 계하를 따로 독립시켜 토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오행에 상응하는 오시령 체계를 따르고 있다. 또한 토보다 귀한 오행은 없으며, 토는 사계절을 두루 주관하지 어느 특정 계절에 매이지는 않는다고 인식한다. 오행문답

17) 『太平御覽』 권17, 「時序部」 2. “樂記曰, 春生夏長, 秋收冬藏, 土所以不名時者, 地, 土之別名也, 比于五行尊, 故自居部職也.”

18) 단지 “春作夏長仁也, 秋斂冬藏義也(봄에 심고 여름에 자라는 것은 仁이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하는 것은 義이다)”라는 문구만 있다. 『禮記大全』 권18, 「樂記」.

19) 지금의 『예기』 속의 「악기」 1편은 公孫尼子가 지은 것으로 본래는 11편이었는데 1편으로 합쳐지면서 사라진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 ‘治順五行’은 옛 판본에 ‘治水五行’ 또는 ‘水治五行’으로 된 곳이 있다. 그러나 이 편에는 治水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 『五行大義』 「論治政」에는 이 편이 『춘추번로』 「치순오행」으로 되어 있다. 아마 문헌이 전승되면서 順에서 頁이 떨어져나가고 川 부분만 남았는데 후대 사람이 그것을 水로 잘못 독해하여 편명이 ‘치수오행’으로 된 것 같다. 다음 편이 「治亂五行」인 것도 이 편명을 「치순오행」으로 보는 유력한 근거이다. 신정근, 『동중서의 春秋繁露 춘추-역사 해석학』(태학사, 2006), 685쪽.

에 관한 『춘추번로』 「오행대」의 내용은 훗날 『백호통의』 「오행」으로 전달된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이것이다. [...] 수는 겨울이 되고, 금은 가을이 되고, 토는 계하가 되고, 화는 여름이 되고, 목은 봄이 된다. [...] 토는 화의 자식이고, 오행 중에서 토보다 귀한 것은 없다. 토는 사시 중의 어느 하나만 주관하지 않으며, 화와 공명을 나누지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sup>21)</sup>

『회남자』 「천문훈」에서는 진술축미의 토가 단지 사계로만 배속되었는데 『백호통의』 「오행」에서는 사령하는 일수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즉, 토는 사계절의 각 끝 달인 계절(季月)에서 각각 18일씩 사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토의 사령 기간은 도합 72일이 되며, 각 오행마다 72일씩 사령하여 1년 360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목은 72일간 왕 노릇을 하는데 왜 그런가? 토는 사계절의 끝에서 각각 18일씩 왕 노릇을 한다. (목의 72일과 토의 18일이) 합해진 90일간이 (봄이란) 한 계절을 이루며, (1년 중에서 봄이) 90일간 왕 노릇을 한다.<sup>22) 23)</sup>

또한 토에는 다른 사행(四行)과 달리 우월적·원천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즉, 흙이 없으면 나무는 살 수 없고, 불은 빛날 수 없고, 쇠는 이를 수 없고, 물은 오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같이 토는 사계절 모두를 근본적으로 돕고 주관하므로 어느 특정한 한때로 지명될 수 없다고 인식되었다.

목화금수 사계절의 각 기간 90일에서 각각 18일씩을 빼내 토에 배당한 『백호통의』의 사계 18일 관점은 1년의 일수를 오행에 똑같이 배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식도 1년의 일수 중 나머지 51/4일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호통의』에서 처음 제시된 이러한 수비학적 방식은 사계절과 오행을 대응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21) 『春秋繁露』 「五行對」. “天有五行, 木火土金水是也. [...] 水爲冬, 金爲秋, 土爲季夏, 火爲夏, 木爲春. [...] 土者, 火之子也, 五行莫貴於土. 土之於四時, 無所命者, 不與火分功名.”

22) 가령 봄의 목행(木行)은 90일 중 72일간 왕 노릇을 하고 토는 나머지 18일간 왕 노릇을 하므로 합쳐서 90일이 된다는 뜻이다.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이다.

23) 『白虎通義』 「五行」. “木王所以七十二日, 何. 土王四季, 各十八日. 合九十日爲一時, 王九十日.”

표1-중국 고대 전적에서 1년 사시·월령의 오행 배속

| 계절<br>월                     | 춘              |   |      | 하              |   |      | 추              |   |      | 동              |    |      | 비고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시경』 「빈풍·칠월」<br>(입춘 후)      | 오행 배속 없음       |   |      |                |   |      |                |   |      |                |    |      |                  |  |  |                   |
| 『상서』 「우서·요전」<br>(입춘 후)      | 오행 배속 없음       |   |      |                |   |      |                |   |      |                |    |      | 1년=366일<br>/윤달   |  |  |                   |
| 『일주서』 「시훈」<br>(입춘 후)        | 오행 배속 없음       |   |      |                |   |      |                |   |      |                |    |      | 1년=360일<br>/24절기 |  |  |                   |
| 『대대례기』<br>「하소정」(입춘 후)       | 오행 배속 없음       |   |      |                |   |      |                |   |      |                |    |      | 1년 12개월          |  |  |                   |
| 『관자』 「사시」<br>(입춘 후)         | 목(甲乙)          |   |      | 화(丙丁)          |   |      | 금(庚辛)          |   |      | 수(壬癸)          |    |      | 土-輔四時<br>≡ 『樂記』  |  |  |                   |
| 『관자』 「오행」<br>(동지 후 甲子일부터)   | 72일간<br>목(甲子-) |   |      | 72일간<br>화(丙子-) |   |      | 72일간<br>토(戊子-) |   |      | 72일간<br>금(庚子-) |    |      | 72일간<br>수(壬子-)   |  |  | 오시령<br>체계         |
| 『여씨춘추』<br>「십이기」(입춘 후)       | 목(甲乙)          |   |      | 화(丙丁)          |   |      | 토(戊己)          |   |      | 금(庚辛)          |    |      | 수(壬癸)            |  |  | 季夏-<br>火土 혼재      |
| 『회남자』 「사칙훈」<br>(입춘 후)       | 목(甲乙)          |   |      | 화(丙丁)          |   |      | 토(戊己)          |   |      | 금(庚辛)          |    |      | 수(壬癸)            |  |  | 季夏-<br>土 독립       |
| 『회남자』 「천문훈」<br>(동지 후 42일부터) | 72일간<br>목(甲子-) |   |      | 72일간<br>화(丙子-) |   |      | 72일간<br>토(戊子-) |   |      | 72일간<br>금(庚子-) |    |      | 72일간<br>수(壬子-)   |  |  | ≡ 『관자』<br>「오행」/순환 |
| 『회남자』 「천문훈」                 | 목(寅卯)          |   | 토(辰) | 화(巳午)          |   | 토(未) | 금(申酉)          |   | 토(戌) | 수(亥子)          |    | 토(丑) | 土의 구체적<br>日數 없음  |  |  |                   |
| 『예기』 「월령」<br>(입춘 후)         | 목(甲乙)          |   |      | 화(丙丁)          |   |      | 토(戊己)          |   |      | 금(庚辛)          |    |      | 수(壬癸)            |  |  | = 『여씨춘추』<br>「십이기」 |
| 『춘추번호』<br>「치순오행」(동지 후)      | 72일간<br>목      |   |      | 72일간<br>화      |   |      | 72일간<br>토      |   |      | 72일간<br>금      |    |      | 72일간<br>수        |  |  | ≡ 『관자』<br>「오행」    |
| 『춘추번호』<br>「오행대」(입춘 후)       | 목              |   |      | 화              |   |      | 토              |   |      | 금              |    |      | 수                |  |  | = 『회남자』<br>「사칙훈」  |
| 『백호통의』 「오행」<br>(입춘 후)       | 목<br>(72일간)    |   | 토    | 화<br>(72일간)    |   | 토    | 금<br>(72일간)    |   | 토    | 수<br>(72일간)    |    | 토    | 土-사계<br>각 18일간   |  |  |                   |
| 『황제내경소문』<br>「사기조신대론」 등      | 오행 배속 없음       |   |      |                |   |      |                |   |      |                |    |      |                  |  |  |                   |
| 『황제내경영추』<br>「순기일일분위사시」      | 목              |   |      | 화              |   |      | 토              |   |      | 금              |    |      | 수                |  |  | 土-<br>長夏·季夏       |
| 『황제내경소문』<br>「태음양명론」 등       | 목<br>(72일간)    |   | 토    | 화<br>(72일간)    |   | 토    | 금<br>(72일간)    |   | 토    | 수<br>(72일간)    |    | 토    | = 『백호통의』<br>「오행」 |  |  |                   |
| 『오행대의』<br>「논사시후왕」           | 甲乙寅卯           |   |      | 丙丁巳午           |   |      | 토              |   |      | 庚辛申酉           |    |      | 壬癸亥子             |  |  | 토-戊己<br>辰戌丑未      |

가장 만족스럽게 해결한 방안 중의 하나였다.<sup>24)</sup>

『백호통의』의 사계 18일설은 토가 사계절 모두를 끌고루 돕는다는

24) 존 헨더슨 지음, 문중양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소명출판, 2004), 27-28쪽.

『관자』 「사시」 및 『악기』의 토보사시(土輔四時) 관점과 1년 360일을 각 오행에 각각 72일씩 균등하게 배분했던 『관자』 「오행」 등의 오시령 72일 관점을 근간으로 하면서 『회남자』 「천문훈」의 사계설, 『여씨춘추』 「십이기」의 계하 화토(火土)혼재 관점 등을 보다 구체화시킨 관점이다.

『오행대의』의 「논사시휴왕」에서는 사시에 따른 간지(干支)의 휴왕(休旺)을 논하면서 “봄에는 갑을(甲乙)과 인묘(寅卯)가 왕하고, 여름에는 병정(丙丁)과 사오(巳午)가 왕하고, 6월(季夏)에는 무기(戊己)와 진술축미(辰戌丑未)가 왕하고, 가을에는 경신(庚辛)과 신유(申酉)가 왕하고, 겨울에는 임계(壬癸)와 해자(亥子)가 왕하다”<sup>25)</sup>고 보았다. 이는 『회남자』 「시칙훈」 및 『춘추번로』 「오행대」와 같은 관점으로 계하에 토의 성질을 독립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황제내경』은 전국시대부터 진한의 삼대에 걸쳐 완성된, 당시 의학이론들의 집대성이다. 「소문」과 「영추」로 구성된 이 책의 논문들 속에는 사시와 오행의 상관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춘하추동 사시를 구분하되 오행에는 배속하지 않는 무배속 관점,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의 특성을 지니는 장하(長夏)나 계하(季夏)를 독립적으로 배속하는 계하 관점, 사계절의 각 끝 달에 토를 배속하는 사계 18일 관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황제내경』에 다양한 관점이 혼재하여 공존하는 까닭은 『황제내경』의 저술 시기가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원 2세기경까지 수 세기에 걸쳐 있으며, 수많은 의학자의 생각이 합쳐지고 손을 거치면서 합작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이다.<sup>26)</sup> 『황제내경』 속에서 각 관점들의 발생순서는 앞의 경우들에 비추어볼 때 ‘무배속 → 계하 → 사계 18일’의 순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사시와 오행 간의 배속에 관한 고대 전적 속의 관점들을 유형화해보면 크게 일곱 가지가 되는데, 무(無)배속설, 토보사시(土輔四時)설, 오시령 72일설, 계하 화토(火土)혼재설, 계하 30일설, 사계설, 사계 18일설 등이다.<sup>27)</sup> 관련 문헌의 저술 추정 시기와 각

25) 『五行大義』 「論四時休王」. “干支休王者, 春則甲乙寅卯王, […] 夏則丙丁巳午王, […] 六月則戊己辰戌丑未王, […] 秋則庚辛申酉王, […] 冬則壬癸亥子王, ……”

26) 龍伯堅 著, 白貞義·崔一凡 公역, 『黃帝內經概論』(논장, 1988), 28-40쪽 참조.

27) 홍성국, 『신비의 이론 사주 궁합의 비밀을 밝힌다』(한솜, 2010), 103-113쪽에서 무토설, 30일 계하설, 72일 계하설①, 72일 계하설②, 4계월설 등 다섯 가지로 먼저 분류한

표2-사시·월령-오행 배속관계의 유형

| 유형       | 계절<br>월 | 춘        |   |   | 하 |   |   | 추 |   |   | 동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무배속설     |         | 오행 배속 없음 |   |   |   |   |   |   |   |   |    |    |    |
| 토보사시설    |         | 목        |   |   | 화 |   |   | 금 |   |   | 수  |    |    |
| 오시령 72일설 |         | 목        |   |   | 화 |   |   | 토 |   |   | 수  |    |    |
| 계하 화토혼재설 |         | 목        |   |   | 화 |   |   | 토 |   |   | 수  |    |    |
| 계하 30일설  |         | 목        |   |   | 화 |   |   | 토 |   |   | 수  |    |    |
| 사계설      |         | 목        | 토 | 화 | 토 | 금 | 토 | 수 | 토 |   |    |    |    |
| 사계 18일설  |         | 목        | 토 | 화 | 토 | 금 | 토 | 수 | 토 |   |    |    |    |

관점의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이들 유형설은 무배속설 → 토보사시설 → 오시령 72일설 → 계하 화토혼재설 → 계하 30일설 → 사계설 → 사계 18일설의 순서로 등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발생순서상 오행보다 앞서는 사시·월령이 처음에는 오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전국시대 말기 이후 오행관념이 추상적인 것까지도 망라하는 유비체계로 대두되면서 토를 제외한 사행이 먼저 사시와 연관되었고, 끝이어서 오행에 상응하는 오시령 체계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시령의 균등한 오행 배속은 춘추동의 사계절 특성을 각기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토를 제외한 사행을 사시에 배속한 후, 화생토(火生土)라는 오행 상생관계를 고려했을 때 토중지토(土中之土)인 미(未)의 6월 계하에 토를 화와 함께 배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수덕을 중시한 진의 천하통일을 거쳐 토덕의 한대에 이르러 사행을 고루 돕고 주관하는 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6월 계하에 토를 독립적으로 배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점차 확장되어 계춘·계하·계추·계동의 사계월(四季月) 모두에 각각 토의 성격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경우 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사계월마다 각각 18일씩, 총 72일(18×4=72)에 토행(土行)을 배속하여 1년 360일을 기준했을 때 각 오행이 72일씩 고루 차지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초기의 오시령 체계 관점까지도 포괄하면서 최종적으로 단락이 이어졌던 것이다.

바 있다. 그러나 누락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이 글에서 보완하여 새롭게 분류하였다.

### III. 월령과 오행 연관의 명리학적 의미

본래 지극히 평범한 자연관에 불과했던 오행관념이 전국 말 흥기하여 진한시대를 거치면서 오덕종시설 등으로 크게 성행하자 당시 사람들은 추상적 관념이나 자연현상 등을 오행의 수리체계인 5에 대응시켰다.<sup>28)</sup> 이에 따라 1년의 사시(四時), 역의 사상(四象) 그리고 천문의 사수(四獸)처럼 4를 기본수로 하던 것이 5와 연관 지어졌다. 그래서 원래 날짜나 순서를 표기하는 단순한 부호에 불과했던 간지도 오행으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천간의 수 10은 2(음양)×5(오행)=10(천간)으로 5에 쉽게 대응하지만 지지의 수 12는 4(사시)×3(맹중계)=12(1년의 달수)가 되어 5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sup>29)</sup> 이로 인해 무배속설에서부터 사계 18일설까지 오랫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각 오행에 72일씩 고루 배분하되 토를 사계월마다 18일씩 배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사계 18일설 관점은 명리학의 배태기를 거치면서 점차 명리학으로 유입되며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월지장간(月支藏干)의 초기 형태로서 ‘지지 안에 소장된(支中所藏) 천간(干)’이란 의미의 지장간(支藏干) 개념이 동진(東晉) 때 이미 신법명리학의 논지를 담고 있던 괘박의 『옥조신응진경(玉照神應眞經)』 중에 “지지 표 중에 천간 癸가 있는데 천간에서 甲을 보면 승려가 된다”<sup>30)</sup>라면서 등장하였다. 이는 추후 천원(天元)·지원(地元)과 대응하는 인원(人元)의 개념으로서, 고법명리학에서의 생년 간지의 납음오행이 신법명리학의 상징인 지장간으로 대체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오대 말 서자평(徐子平)은 『명통부(命通賦)』 서두에서 “월지를 기준으로 삼아 사시를 나누고 오행의 소식을 일으켜서 운(명)을 논한다”<sup>31)</sup>고 했다. 이는 월지를 중심으로 대운(大運)이 나아가고 사주의 격국(格局)을 정하는 현대의 신법명리학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즉, 사주의 단편적인 특징을 갖고서 일관성 없이 번거롭게 사주의 격국을 정하던 이전의

28) 俞曉群, 『數術探秘: 數在中國古代的神秘意義』(北京: 三聯書店, 1995), 46-52쪽 참조.

29) 근본적으로 왜 10천간 12지지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논자의 선행 연구인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십이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민족문화연구』 제54호, 2011) 263-268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30) 『玉照神應眞經』. “丑中立癸, 甲見而釋教之人.”

31) 『明通賦』. “論運者, 以月支爲首, 分四時, 而提起五行消息.”

고법명리학과 달리 월지와 월령을 중심으로 사주 전체의 기세를 살펴서 사주의 격국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서자평으로부터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생년의 간지인 연주(年柱)의 납음오행을 위주로 간명하던 고법명리학에서 사시·월령과 오행의 연관을 통해 생일의 천간인 일간(日干)과 생월의 지지인 월지(月支)를 위주로 간명하는 신법명리학으로의 전환은 사람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인에 대한 인식이 '조상·가문·문벌'에서 '개인의 타고난 품기·자질·능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sup>32)</sup> 이는 당시 과거제(科擧制)의 시행 및 정착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통치에 필요한 유능한 관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의 추천제를 대신하여 수대(隋代)에 처음 시행된 과거제가 당대(唐代)에도 계승·발전되었다. 출신이 한미할지라도 재능이 걸출한 인재는 공평한 경쟁을 통해 등용하는 과거제는 당대에는 관리 선발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송대(宋代)에 이르러 과거제의 비중이 커지면서는 문벌귀족계층이 사라지고 사대부의 서민사회가 열리게 되었다.<sup>33)</sup>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기조의 변화가 문벌을 의미하는 생년 위주에서 개인을 의미하는 생일을 위주로 월지와 월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명리학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남송 1253년 서대승(徐大升)이 저술한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變淵源)』에 후대 학자들의 문집(文集)과 당시의 구결(口訣)을 더하여 1634년 명의 당금지(唐錦池)가 편찬한 『연해자평(淵海子平)』이란 고전 명리서에 수록된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에서 진술축미(辰戌丑未) 사계월의 오행 속성으로 각기 18일 6분을 무기(戊己)의 토에 배정하고 있는 것도 사계 18일 관점의 예가 된다.

1578년 명대의 만민영(萬民英)이 편찬한 명리 백과서인 『삼명통회(三命通會)』도 이와 유사한 사계 18일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각 계절의 순차적 월서(月序)를 의미하던 월지가 지장간 개념과 결합하여 월지장간·월률분야 등으로 확장되면서 월령의 의미는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으며 사계 18일설도 변형되었다.

32) 김만태, 앞의 논문(2010), 119쪽.

33) 張希清, 『中國科擧考試制度』(北京: 新華出版社, 1993), 3-10쪽, 142-148쪽.



그림1-『연해자평』 월률분야지도

시간이 운행하고 만물이 생기는 것은 불변한 천도(天道)이다. 1년 중에는 진퇴가 있으나 사시(四時)에는 본래 경중이 없다. 그러므로 금목수화(金木水火)는 사시로 구분되어 왕하니 각자 72일씩을 얻고, 토(土)는 사계에 고루 왕하여 각 18일씩 있으니 도합 360일이 되어 1년을 완성한다. 입춘 후부터는 양목(甲)이 36일간을 사령하니 간토(艮土)가 나뉘어 병무(丙戊)가 장생하고, 경칩 6일 후부터는 음목(乙)이 36일간을 사령하니 계수(癸水)가 기생하고, 청명 12일 후부터는 무토(戊土)가 18일간을 사령하니 양수(壬)는 창고에 들어가고 음수(癸)는 소생한다. 여름·가을·겨울도 이와 같다.<sup>34)</sup>

명리학에서 월률분야는 사람이 태어난 절기의 심천(深淺)에 따른 기상 변화를 천간의 구성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그러나 『연해자평』의 월률분야에서는 토(戊己)가 차지하는 기간이 111일이나 되어 목(甲乙)의 63일, 화(丙丁)의 55일, 금(庚辛)의 68일, 수(壬癸)의 63일보다 월등히 키치면서<sup>35)</sup> 각 오행 간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연해자평』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 전반적 설명이나 일수 계산에

34) 『三命通會』 권2, 「論人元司事」. “時行物生, 天道之常. 一歲之中, 雖有進退, 四時之內, 本無輕重. 故以金木水火, 分旺四時, 各得七十二日. 土旺四季, 各有十八日, 共三百六十日, 乃成歲焉. 立春之後, 則用陽木三十六日, 艮土分野, 丙戊長生. 驚蟄後六日, 則用陰木三十六日, 癸水寄生. 清明後十二日, 則用戊土十八日, 陽水歸庫, 陰水返魂. 夏秋冬亦如此.”

35) 『淵海子平』 권1, 「五行發用定例·月律分野之圖」, 「論天地干支暗藏總訣」, 「又論節氣歌」.

오류가 있어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연해자평』보다 조금 일찍 간행된 『삼명통회』<sup>36)</sup>는 월령을 ‘인원사사(人元司事)’라고 칭하면서 월률분야와 비슷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된 일수가 『연해자평』과 매우 상이하<sup>37)</sup> 일수 계산에도 오류가 있고 배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매우 소략하다. 이처럼 월률분야에서 각 오행에 배분되는 일수가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을 상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연구 차후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중점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명초의 유백온(劉伯溫)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sup>38)</sup> 명리서 『적천수(滴天髓)』의 맨 처음 글 ‘천도(天道)’에는 사계에 토를 배정하는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음양·삼원(삼재)·사시 그리고 오행이 명리학에서 지니는 의미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천도: 모든 법의 근본인 삼원(三元)을 알고자 하면 먼저 음양과 오행을 살펴야 한다. 하늘에는 음양이 있으므로 봄에는 목기, 여름에는 화기, 가을에는 금기, 겨울에는 수기, 각 계절의 끝에는 토기가 때에 맞춰 그 오행의 기운을 드러낸다. 명 안에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원의 이치도 모두 이것에 근본하고 있다.<sup>39)</sup>

명리학의 근묘화실론(根苗花實論)에서는 월주(月柱)를 묘(苗)라고 하여 식물의 싹에 비유하는데 월간(月干)은 부궁(父宮)이고 월지(月支)는 모궁(母宮)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명리학에서 월지는 사람의 출생에서 모태 환경으로, 성장과정에서는 모친의 역할로 여겨지는 매우 중요한

36) 『삼명통회』는 明萬曆戊寅年(1578)에 간행되었고(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48쪽), 『연해자평』은 南宋 寶祐字元(1253)에 발간된 『자평삼명통변연원』을 근간으로 明 崇禎 7년(1634)에 간행되었으므로(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28, 2012a, 276쪽) 최종 완성본 간행연도는 『삼명통회』가 조금 이르다.

37) 『삼명통회』 권2, 「論人元司事」에서는 목 67일, 화 65일, 토 94일, 금 67일, 수 67일, 도합 360일로 설명한 후, 뒤에서는 목 67일, 화 65일, 토 103일, 금 64일, 수 57일, 도합 356일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38) 『明史』 『藝文志』 『浙江通志』 『經籍』 『千頃堂書目』 등에 유백온이 찬한 것으로 『三命奇談滴天髓』 1권이 기록되어 있으나 원문이 없어 지금의 『적천수』와 같은 것인지 알 수 없다.

39) 劉伯溫 著,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髓闡微』(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天道〉, 11쪽. “天道: 悉識三元萬法宗, 先觀帝載與神功(天有陰陽, 故春木, 夏火, 秋金, 冬水, 季土, 隨時顯其神功. 命中天地人三元之理, 悉本于此).”

개념이다. 또한 월지에 당령(當令)한 것을 의미하는 월령은 사주 명조의 전반적 기세(氣勢)와 격국(格局)·용신(用神)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명리학에서 월령의 의미와 중요성은 앞서 살펴본 『적천수』를 비롯하여 명리 고전서인 『명리약언(命理約言)』·『자평진전(子平眞詮)』·『궁통보감(窮通寶鑑)』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적천수』 「월령」은 월령의 명리학적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는데, “월령은 곧 핵심(提綱) 부서이니 비유하자면 집이 되고, [월지 안의 천간, 즉 월지장간(月支藏干)인 인원(人元)은 집권하는 지휘관이니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려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40)</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대의 『적천수』 주해서인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서는 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하였다.

영성(命星, 월령)은 삼명(三命)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기상(氣象)과 희신(喜神)이 월령을 얻으면 길하니 어찌 월령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월령은 사람의 가택(家宅)과 같고, 월령 중의 삼원, 즉 월지장간은 가택의 향도(向道)를 결정하는 것과 같으니 가려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월령은 명(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상과 격국·용신 모두 핵심 부서인 월령에서 관장하는 것이다.<sup>41)</sup>

청초에 진소암(陳素庵)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명리약언』도 월지에서 당령한 것, 즉 월령을 취한 것으로써 먼저 격국을 정하며, 일주(日主)의 강약도 먼저 월령과의 관계로써 추론한다면서 월령의 명리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격국을 정함에는 먼저 월지에서 당령(當令)한 것으로 취하고 그다음 득세(得勢)한 것에서 취한다. 또한 일주가 왕한지 약한지를 보거나 관성·칠살·재성·인성·식신·상관이 왕한지 약한지를 볼 때도 먼저 월령과의 관계로서 추론을 한다. 가령 목이 춘월에 있으면 왕하게 되는데 경칩 이후 곡우 이전이라면 더욱 왕해지고, 목이 가을에 있으면 약하게 되는데 백로 이후 상강 이전이라면 더욱 약해진다. 그러나 목의 무리가 많거나 목을 원조하는 오행이 많으면 가을의 목이라도 왕해지고, 목의

40) 위의 책, 130쪽, 〈月令〉. “月令乃提綱之府, 譬之宅也, 人元爲用事之神, 宅之定向也. 不可以不卜.”

41) 위의 책, 130-131쪽, 〈月令〉. “命星乃三命之至要, 氣象得令者吉, 喜神得令者吉, 令其可忽乎. 月令如人之家宅, 支中之三元, 定宅中之向道, 不可以不卜. [...] 月令者, 命中之至要也, 氣象, 格局, 用神, 皆屬提綱司命.”

세력이 고립되거나 목을 극하는 것이 많으면 봄의 목이라도 약해진다. 그 밖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sup>42)</sup>

1776년 청의 심효첨(沈孝瞻)이 저술한 명리서 『자평진진』에서는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일간(日干)을 월령의 지지(地支)에 대비하여 그 생극(生剋)의 차이로써 격국을 구분한다. […]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제강(提綱, 월령)만이 (사주명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주의 간지를 일일이 월령에 대조해야 그 희기(喜忌)를 알 수 있다<sup>43)</sup>”라고 하면서 『적천수』와 마찬가지로 월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궁통보감』은 원래 명칭이 『난강망(欄江網)』인데 명대 신원미상의 인물이 지은 명리서로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오자와 누락된 구절이 많이 생겨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청말에 여춘태(余春臺)가 이를 보완해 다시 간행하면서 『궁통보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책(궁통보감)은 십간의 성질과 태어난 열두 달의 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찍이 그 대강(大綱)을 거론하고 궁리하여 유용하게 했으며 훗날의 인사(人事)를 바로잡았다.<sup>44)</sup>

『궁통보감』의 내용은 10개의 일간을 12개월의 월지와 월령에 일일이 대조하면서 필요한 오행 글자를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주의 한난조습(寒暖燥濕) 여부를 파악하여 용신(用神)을 결정하는 조후론(調候論)의 핵심으로서, 월령을 사주 내의 기후상태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사상을 명리학에서는 천간과 지지의 상관관계로써 전개하는데 고법명리학에서는 대개 천원(天元)은 생년의 천간,

42) 陳素庵 著, 韋千里 선집, 『命理約言』(香港: 上海印書館, 1987), 8쪽, 〈看月令法一〉. “格局先取當令, 次要得勢. 若日主之爲旺爲弱, 官殺財印受傷之爲旺爲弱, 亦先以月令推之. 如木在春月爲旺, 在驚蟄以後, 穀雨以前, 爲尤旺, 在秋月爲弱, 在白露後, 霜降以前爲尤弱. 或黨多援衆, 則秋木亦旺, 勢孤克衆, 則春木亦弱. 餘仿此.”

43) 沈孝瞻 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83쪽, 93쪽, 〈論用神〉. “八字用神, 專求月令. 以日干配月令地支, 而生剋不同, 格局分焉. […] 今人不知專主提綱. 然後將四柱干支, 字字統歸月令以觀喜忌.”

44) 余春臺 撰, 徐樂吾 評註, 『窮通寶鑑評註』(臺北: 進源書局, 2006), 7-8쪽, 〈自序〉. “是書於十干性質, 生於十二月之用法, 已舉其大綱, 窮理致用, 正後人之事.”

지원(地元)은 생년의 지지, 인원(人元)은 생년 간지의 납음오행으로 보는<sup>45)</sup> 반면 신법명리학에서는 천원은 천간, 지원은 지지, 인원은 지장간으로 인식한다. 즉, 지장간은 고법명리학의 납음오행을 대체하는 신법명리학의 인원 개념이다. 그러므로 월령이 명리학에 도입되면서 보다 세분화·복잡화된 지장간·월지장간·월률분야 등은 삼재사상의 신법명리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대 말 서자평(徐子平)은 지장간의 천간투출(天干透出)과 지장간충(地藏干沖), 간지암합(干支暗合) 등 신법명리학의 초기 삼재사상을 제시하였다.<sup>46)</sup> “표은 열두 달이 다한 것으로 그 안에 쫓가 있으며, 甲은 십간의 처음으로 寅이 甲에서 존재하는데, 寅이 공조(功曹)가 되면 도사(道士)가 된다. 丑寅이 격각(隔角)이 되고 천간이 휴수(休囚)하고 무기(無氣)한 사람은 승도(僧徒)가 된다”<sup>47)</sup>는 내용이 그 예의 하나이다.

서자평에 이어 신법명리학의 이론체계를 확립한 남송의 서대승(徐大升)은 『자평삼명동변연원』 「정진론(定眞論)」에서 “날(日)을 해석하는 법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으니 간(干)을 천(天)이라 하고, 지(支)를 지(地)라 하고, 지지 안에 들어 있는 천간(支藏干)을 인원(人元)이라 한다(釋日之法有三要, 以干爲天, 以支爲地, 以支中所藏爲人元)”<sup>48)</sup>고 하면서 고법명리학과 달리 지장간을 인원(人元)으로 보는 신법명리학적 삼재론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삼재사상적 근간이 현대의 신법명리학으로 면면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 내용을 총괄해보면 중국 고대 사상체계에서 천인합일과 천인감응 사상에 바탕을 둔 월령은 사시·오행 관념과 연관되면서 명리학으로 수용되어 사주 전반의 기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시간의 흐름인 계절이 자연계 및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듯이

45) 대표적 고법명리서인 『李虛中命書』(권中)에서는 “元命勝負三元者, 干祿, 支命, 納音身, 各分衰旺之地(원명이 三元으로써 판가름된다는 것은 [생년] 천간의 祿, 지지의 命, 간지 납음의 身이 각기 그 쇠왕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고법명리서인 『珞珠子賦註』(권下)에서는 “天元者, 十干之謂也. [...] 人元者, 支神之謂也. [...] 下元者, 納音之謂也”라고 하면서 『이허증명서』와 달리 지원(하원)을 납음오행, 인원을 지지로 보았다.

46) 이명재, 「서자평의 명리사상 연구-『옥조신응진경』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6(2013), 376쪽.

47) 『玉照神應眞經』. “丑爲十二月之盡, 其中立癸, 甲爲十干之首, 寅立於甲, 寅爲功曹, 爲道士. 丑寅爲隔角, 上帶休囚無氣者, 爲僧徒.”

48) 『子平三命通變淵源』 권上, 「定眞論」.

명리학에서도 천시를 반영하는 월령이 사주 내의 다른 간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다.

이런 경향은 고법명리학에서보다는 오대 이후 신법명리학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신법명리학에서 명(命)의 주인공인 일간(日干)이 오행의 유비인 오시령 체계와 결합된 천지 음양의 절후(節候) 양상이자 월지의 당령(當令)으로서의 월령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일간과 월령의 상응). 그럼으로써 격국(格局)과 조후(調候) 등 사주명조의 상태 여하가 결정되어 운명의 길흉성패의 대강이 드러나게 된다는 간명(看命)원리로 사시·월령과 오행의 연관관계가 정립되었다.

또한 사계 18일 관점이 확정된 후 명리학으로 수용되면서 명리학에서는 월지를 중심으로 지장간의 개념이 등장하여 고법명리학의 연주의 낚음오행을 대체하였다. 나아가 월지와 지장간이 상호 결합하여 월지장간·월률분야 등으로 확장·응용되는 과정에서 월령의 의미는 더욱 복잡해졌고 지지(地支)의 삼합(三合)·충(衝)·형(刑)·생왕묘절(生旺墓絕)<sup>49)</sup> 등의 논리에 명리학적 당위성을 두고 치중하다보니 본래의 사계 18일 관점도 『연해자평』과 『삼명통회』의 설명에서 보듯이 정합성을 상실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추후 명리학적 삼재사상의 인원(人元)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IV. 맺음말

하늘은 인간의 운명을 주재하는 최고의 의지적 존재라는 천명사상이 표방되면서 천시에 순응하여 인사를 행해야 한다는 월령사상도 함께 중시되었다. 그래서 제요(帝堯)와 희화(羲和)의 고사와 같이 일찍부터 경천수시(敬天授時)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기본물질을 의미하던 평범한 오행의 관념이 전국시대에 오면서 점차 추상화되고 고도의 유비체계가 되면서 월령사상과 연관 지어졌다. 그 바탕에는 천인합일과 천인감응 사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4를 기본으로 하는 춘하추동의 사시와 월령은 5를 기본으로

49) 김만태,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 『철학논집』 31(2012b); 김만태, 앞의 논문(2013).

하는 목화토금수의 오행과 대응하기가 곤란하였다. 이 때문에 사시·월령과 오행의 배속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견지에서 시도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대 전적 속의 이런 관점들을 학계 최초로 유형화하였는데, 무배속설, 토보사시설, 오시령 72일설, 계하 화토흔재설, 계하 30일설, 사계설, 사계 18일설 등 일곱 가지가 그것이다. 이들 관점은 무배속설 → 토보사시설 → 오시령 72일설 → 계하 화토흔재설 → 계하 30일설 → 사계설 → 사계 18일설의 순으로 진화하였다.

사계 18일 관점은 배태기를 거쳐 명리학에도 점차 수용되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의 사계 18일 기조는 큰 틀은 유지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변형되면서 적용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각 계절의 순차적 월서(月序)를 의미하던 월지가 오대 이후 신법명리학에 도입되어 지장간과 결합하여 지장간·월률분야·인원용사 등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월령이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간지의 역법과 음양오행설을 통한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그 운명의 길흉화복을 추론하는 명리학은 중국의 여타 고대과학 이상으로 월령과 오행의 연관성을 활용하였다. 이런 연관성은 오대 이후 신법명리학에서 특히 강조되었으며, 월령은 신법명리학에서 사주 전반의 기세와 기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지장간·월률분야·인원용사 등 명리학적 삼재사상을 고찰하는 데 필수적 선행 요건인 사시·월령과 오행의 배속 및 이들의 명리학적 수용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고찰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그 논의가 거의 없는 신법명리학의 지장간 등 인원(人元)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나아가 명리학적 삼재사상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管子』, 『瑤球子賦註』, 『大戴禮記』, 『明史藝文志』, 『明通賦』, 『白虎通義』, 『三命通會』, 『尙書』, 『詩經』, 『呂氏春秋』, 『淵海子平』, 『禮記大全』, 『五行大義』, 『玉照神應眞經』, 『李虛中命書』, 『逸周書』, 『子平三命通變淵源』, 『浙江通志』, 『千頃堂書目』, 『春秋繁露』, 『太平御覽』, 『黃帝內經素問』, 『黃帝內經靈樞』, 『淮南子』, 『欽定四庫全書』(子部 術數類, 『李虛中命書』提要).

관중 지음, 김필수 외 옮김, 『관자』. 소나무, 2010.

김만대,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인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a.

\_\_\_\_\_,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 『철학논집』 3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b.

\_\_\_\_\_, 「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衝·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1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신정근, 『동중서의 春秋繁露 춘추-역사 해석학』. 태학사, 2006.

龍伯堅 지, 白貞義·崔一凡 공역,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이명재, 「서자평의 명리사상 연구-『옥조신응진경』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6, 중국학연구회, 2013.

이석명, 「『회남자』의 時令사상과 음양오행론」.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종호 편, 『유교 경전의 이해』. 중화당, 1994.

제해성, 「『逸周書』의 文學 價値에 관하여: 胡念貽의 〈『逸周書』中的三篇小說〉에 대한 淺見」. 『중국어문학』 34, 영남중국어문학회, 1999.

존 헨더슨 지음, 문중앙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소명출판, 2004.

홍성국, 『신비의 이론 사주 궁합의 비밀을 밝힌다』. 한숨, 2010.

沈孝瞻 지, 徐樂吾 평주, 『子平眞詮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余春台 편, 徐樂吾 평주, 『窮通寶鑑評註』. 臺北: 進源書局, 2006.

劉伯溫 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龍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俞曉群, 『數術探秘: 數在中國古代的神秘意義』. 北京: 三聯書店, 1995.

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張希清, 『中國科舉考試制度』. 北京: 新華出版社, 1993.

陳素庵 지, 韋千里 선집, 『命理約言』. 香港: 上海印書館, 1987.

## 국 문 요약

전국시대 말기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을 바탕으로,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인사(人事)를 행해야 한다는 월령(月令)사상이 오행(五行)관념과 연관되었다. 그러나 4를 기본수로 하는 사시·월령은 오행과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월령과 오행의 배속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 관점이 『백호통의(白虎通義)』의 '사계(四季) 18일설'이다.

그러나 단순히 각 계절의 순차적 월서(月序)를 의미하던 월지(月支)가 오대(五代) 이후 신법(新法)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 개념과 결합하여 월지장간(月支藏干)·월률분야(月律分野) 등으로 확장되면서 월령의 의미는 매우 복잡해졌고 사계 18일설도 변형되었다. 고법(古法)명리학의 납음오행(納音五行)을 대체하는 '지지[地] 안에 소장된[支中所藏] 천간[干-天]'이란 의미의 지장간[支藏干-人] 개념은 삼재(三才)사상의 신법명리학적 표현이다. 이에 따라 간지(干支)의 역법(曆法)과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기반으로 하는 명리학은 다른 어느 학문분야보다도 삼재사상의 기반 위에서 사시·월령과 오행의 연관성을 적극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투고일** 2014. 6. 20.

**심사일** 2014. 8. 1.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월령(月令, monthly ordinances), 오행(五行, the five elements), 시령(時令, timely ordinances), 사시(四時, four seasons), 월률분야(月律分野, field of ruling in each month), 지장간(支藏干, the ten celestial stems stored in the twelve earthly branches), 삼재(三才, three components of the universe), 명리학(命理學, the science of Ming Li)

### A Study on Acceptance of Four Seasons and Monthly Ordinances on the Viewpoint of the Science of Ming Li

**Kim, Man-tae**

At the end of China's Warring States Period the monthly ordinances was associated with the Five Elements. The Monthly ordinances required human affairs should be conducted by complying with the times and seasons based on thoughts of oneness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 and response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 However, because four-season and monthly ordinances in which the number 4 is the basic number was difficult in responding to the Five Elements, assignment of the monthly ordinances and the Five Elements had been attempted from various viewpoints. The most representative viewpoint may be the theory of "the last month of each season being 18 days."

However, the meaning of the monthly ordinances became significantly complicated when the ordinances, which had merely meant the serial order of twelve months in each season, were entered into the science of Ming Li and were expanded into the field of ruling in each month; consequently, the theory of "the last month of each season being 18 days" was transformed. During the process the conception of Ji-Jang-Gan[Human] (meaning the ten celestial stems[Heaven] preserved in the twelve earthly branches[Earth]) was produced, an expression of newly-established science of Ming Li of the thought of three materials. The science of Ming Li, reasoning fortune of a person based on the calendar of the sexagenary cycle and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utili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nthly ordinances and the Five Elements more than any other Chinese ancient science.